

도교육청 - 전북도 교육협력 '결실'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 최종 선정... 3년간 고졸 인재양성 역할 담당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올해 교육부가 주관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 농생명·바이오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전북도와 공동으로 응모한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혁신 기술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성장시키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1월 18일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성공적인 모델 구상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교육협력의 커다란 성과이자, 향후 강력한 교육협력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사업에 두 기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년대북 직업계고 혁신지구'를 비전으로 내걸고 스마트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전북의 전략산업인 '스마트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바이오식품, 지능형농업설비

를 핵심분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년대북직업교육혁신센터'를 도교육청에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교육청·지자체·동행기업·동행대학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원체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3개 핵심분야(스마트농업, 바이오식품, 지능형농업설비) 참여학교, 공동기업 및 공동대학 업무담당자들로 '직업교육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신성장 경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 직업계고 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북직업교육혁신센터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나혜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첫 결실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학생

들이 지역 전략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대학,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의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자체-직업계고-지역대학기업체가 함께 동행하는 상생모델의 기를 마련은 물론, 직업계고 인재 육성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3년간 고졸 인재 양성 역할을 하게 되며, 광역단위는 10억원, 기초단위는 5억원을 지원받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및 동문대상 시상식이 15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200여 명의 동문과 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대 동창회 신년교례회 개최

동문 대상에 서거석 교육감·왕은철 석좌교수
고규영 카이스트 특훈교수 등이 개인분야 대상
전북은행 전북대동문회가 단체분야 대상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및 동문대상 시상식이 지난 15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200여 명의 동문과 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거석 교육감과 왕은철 석좌교수, 고규영 카이스트 특훈교수 등이 개인분야 대상을 받았다. 단체 동문대상에는 전북은행 전북대동문회가 선정됐다.

또한 공로상은 장병수 전 총장이, 해외동문특별상은 김병훈 뉴욕 동문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정영택 총동창회장(62·은누리안 과평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침밥만은 먹어서 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부모 마음에 지난해 1만 3

천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했다"며 "금액의 과다를 떠나 이 사업에 참여해 준 동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출장 중인 김관영 도지사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우리 도는 인재양성과 지역소멸의 해법으로 교육 협력의 길을 택했다"며 "교육 협치를 통한 지역발전이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산 정연호·김제 정성주 시장, 완주 유희태 군수를 비롯해 김호서 전 도의회의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은성 기자



'힘내요 한우농가' 전북대학교 LINC 3.0(단장 송철규) '힘내라 한우' 대학생 응원단이 16일 오후 정음한우를 찾아 사료값 폭등과 한우소비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위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응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오늘까지 신입생 환영행사 개최

전북대학교는 16~17일 이틀간 진수당 가인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가 3년 만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16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은 교수 밴드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수강신청이나 장학금 제도 전과, 복수전공, 학군단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학생자치회 소개, 그리고 공연이 새로운 대학생들 시작할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17일에는 신입생 환영행사의 일환으로 신입생 캠퍼스 투어와 각 학과별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대학 곳곳에 9개의 부스를 학생들이 돌면서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내 민주화길 현장탐방 지원 자료 제작·보급

남원 독립운동길·신석정과 함께 걷는 민주화길 등
도교육청, "학생 자긍심·민주시민의식 높여 나갈 것"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북민의 차별화된 교육 자료가 나왔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 인물의 발자취를 좇는 '민주화길' 현장 탐방을 진행, 이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지원단을 꾸리고 학계 전문가 지역 문화해설사 등의 자문을 얻었다. 또 제작된 자료로 지원단 소속과 학생들과 함께 현장 탐방도 진행해 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원의 독립운동길은 고등용과 초등용으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 설산 이광수 선생이 오수초등학교 학생들과 전곡에서 초등학생 신분으로 유일하게 1919년 3월 10일 민세운동을 전개했다. 김재는 독립운동 인물길과 지역길로 제작됐다.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하고,

립의 생가터와 그의 용마가 물린 용마 무덤을 따라 걸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동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는 민주야 소풍가자 시월길 자료도 개발했다.

또한 부안지원청에서는 '사브작사브작' 신석정과 함께 걷는 민주화길' 자료를 개발, 목가시인으로 알려진 신석정 시인의 민주화에 대한 영원을 담은 시들과 함께 걷는 현장탐방 자료를 제작했다.

한편 '민주화길' 자료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용 자료와 교사용 지도자료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해 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환 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지역의 민주화길 현장탐방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보급해왔다"면서 "올해 전북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민주화길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제작과 현장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자긍심과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17일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97개 일반고와 전북의국이고 등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학교별 공동교육과정

업무담당자에게 2023학년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사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는 △전라북도 공동교육과정의 개념 및 근거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 △오프라인·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세부 운영 방침으로 나누어 분야별 계획과 학교 지원방안을 설명한다. 또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사용법 안

내는 △공동교육과정 업무 흐름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공동교육과정 신청 학생 관리 △공동교육과정 준비 및 운영 등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을 거점학교와 참여학교로 구분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도내 모든 일반고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준비학교로 운영됨에 따라 단위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참여 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지원에 나날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양자점 나노스케일 3D 프린팅 기술 학계서 '주목'

전북대 안상민·이홍석 교수팀

3D 프린팅을 나노크기로 할 수 있는 '나노스케일 양자점 3D 프린팅 제조 기술'을 전북대 안상민·이홍석 교수팀(자연대 물리학과)이 선보여 학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안상민 교수 이홍석 교수

16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반도체 특성을 지니면서 발광 효율이 매우 높고, 고품질인 양자점 용액을 나노크기의 구멍을 지닌 나노노즐에 주입 후 3D 프린팅할 수 있는 새로운 3D 프린팅 제조 기술을 확보, 나노 분야 세계적인 저널인 'Nanoscale Advances (IF=5.598)' 최신호에 논문을 게재, 표지 논문(Cover Paper)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전북대 노희석 교수와 포항공대 박경덕 교수가 공동 수행했다. /정은성 기자

안상민·이홍석 교수는 "품질 높은 양자점을 나노스케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양자점을 적층하거나 교차하는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연구 의미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지역 맞춤형 폐교활용 방안 마련

도교육청, 전일 부산·20일 광주 찾아 벤치마킹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맞춤형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지역교육청 등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심공동화와 농산어촌 학생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지역 활력소로 활용하기 위해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맞춤형 폐교활용 벤치마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등 학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어 20일에는 광주를 찾는다. 광주 지역은 지자체 대부분 시제로 폐교인 분당중학교를 도시와 농촌을 잇는 주민참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폐교 활용 기본 방향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마당 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폐교 40곳 중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을 발굴해 학생 미래교육공간 및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벤치마킹에는 도교육청 폐교 TF 위원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회,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먼저, 16일에는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은 자체활용중으로 폐교인 회동초와 연포초를 영양체육교육관(회동마루)과 창의융합 문화공간(창의마루)

특히 이번 벤치마킹에는 도교육청 폐교 TF 위원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회,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먼저, 16일에는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은 자체활용중으로 폐교인 회동초와 연포초를 영양체육교육관(회동마루)과 창의융합 문화공간(창의마루) /정은성 기자